

싱가포르·UAE,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트럼프 압박에 백기투항

한국·멕시코·터키도 언급

10월말 이전 결정해야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무임승차해 있다고 중국 등 11개국을 지목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시한으로 이들 국가에 개도국 옷을 벗으라고 최후통첩성 발언을 한 가운데 해당 명단에 오른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에 대한 WTO 개도국 지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이후 싱가포르와 UAE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싱가포르찬춘싱(陳振聲) 통상산업장관은 1일 블룸버그통신에 싱가포르는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UAE 경제부도 지난달 29일 UAE는 당초 WTO 의무 조항상 미국의 요청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WTO 회원국들이 개도국 혜택 철회를 승인한다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와 UAE가 WTO 개도국 옷을 벗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

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7개 나라 및 지역을 불공정한 개도국 특혜 사례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아울러 불공정 사례의 대표 격으로 중국을 거론했지만, 중국은 일찌감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된 멕시코, 동남아 석유부국 브라루나이 등은 미국의 압박으로 개도국 지위를 벗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낀 한국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한국은 그동안

OECD 회원국이면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갖고 있어 각종 국제회의에서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이나 서방 등 선진국 그룹에 제대로 끼지 못하고 어정쩡한 위치를 유지한 채 양 그룹의 동정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WTO 체제에서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선언하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데,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농업 관세·보조금 규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90일 시한이 끝나는 10월 말 이전에 한국도 가부간 개도국 지위를 벗고 선진국 그룹으로 완전히 적을 옮길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92〉야율덕광

야율덕광(耶律德光, 902~947)은 요나라의 2대 황제인 태종이다. 오대의 후당과 후진을 멸망시켜 북방 지역의 강자로 부상했다. 947년 국호를 대거란국에서 대요로 개칭하였다.

902년 요 태조 야율아보기와 술룰루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요골이고 자는 덕근이다. 916년 야율아보기는 거란국의 황제가 되어 장남 야율배를 태자로 삼았다. 926년 야율아보기가 발해국을 침정하고 귀국 도중 길림의 부여성에서 병사하였다. 술룰루가 나온 세 아들이 뒤를 이을 적자였다. 순리대로 하자면 장남인 야율배가 황제에 되어야 한다. 그는 중국 문화에 심취한 친중주의자였다. 유가문화를 존숭해 공자사당을 세워 제사드릴 것을 부친에게 건의하였다. 중국 문화에 심

는 바이나 내 어찌 감히 여기겠소.” 덕광을 옹립해 천황왕으로 삼았다. 술룰루는 옹전황태후가 되었다. 형 야율배는 동단국왕에 봉해졌으나 동생의 압박이 갈수록 심해졌다. 결국 930년 후당에 몸을 위탁했다.

태종으로 즉위하자 한연휘를 재상으로 삼고 중원 정벌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후당의 절도사 석경당은 거란에 도움을 청해 후당을 멸망시키고 936년 후진을 건국했다. 석경당은 거란과 협약을 맺어 베이징 주변의 연운 16주를 할양하고 매년 비단 30만필을 보내며 야율덕광을 아버지로, 자신을 신하로 칭하였다. 938년 후진으로부터 연운 16주의 지도와 호적을 넘겨받았다. 942년 후진의 석경당이 죽자 제왕 석중귀가 뒤를 이었다. 온건파 풍도 대신 대거란 강경론자인 경연광이 정권을 부친에게 건의하였다. 중국 문화에 심

후당·후진 멸망시킨 요나라 2대황제

취했고 음악, 침술, 의학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었다. 한자로 시를 지을 정도로 문화 수준이 높았다. 특히 동양화에 일가견이 있었다. 반면에 야율덕광은 부친을 닮아 말과 활쏘기에 능했다. 전쟁 수행 능력도 뛰어났다. 유목 민족인 거란족의 지도자에 적합한 전형적 무인이었다. 리더십도 있고 사람을 잘 다루어 추종하는 부하들이 많았다. 막내는 야율이호인데 성품이 거친 범용한 인물이었다.

태조 사후 실권을 장악한 술룰루는 무술과 지략을 중요시하였다. 거란의 황제는 뛰어난 무인의 기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찍이 야율아보기는 세 아들에게 장작을 패게 해 그 기질을 시험했다. 덕광이 가장 먼저 일을 완수했다고 한다. 장남은 마른 빨간만을 끌다 돌아왔고 막내는 적당히 주워 담아 돌아왔다. 덕광이 일을 맡기면 빈틈없이 완수하는 능력을 보유했음을 알 수 있다. 술룰루는 수도인 파림좌기에 도착해 여러 족장들에게 말하였다. “야율배와 야율덕광은 내가 모두 아끼는 자식이므로 당신들이 세울 만한 사람을 선택해 그의 말고삐를 잡아라.” 족장들이 덕광의 말고삐를 다투어 잡고 함성을 지르며 말하였다. “바라건대, 덕광 태자를 섬기겠습니다.” 이를 지켜본 술룰루가 말하기를 “무리들이 바라

가능하나 칭신(稱臣)은 할 수 없다며 단교를 통보했다. 격노한 태종은 남하를 결심해 이후 3년에 걸친 후진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947년 정월 후진의 수도 개봉에 입성했다. 경연광을 체포해 목졸라 죽이고 석중귀를 유폐하였다. 2월 초하루 천자가 쓰는 통천관을 쓰고 진홍색 옷을 입고 대요의 황제에 즉위하였다.

거란군은 기병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통솔해왔다. 이에 따라 각지에서 갈들이 심화되었다. 동쪽 지방인 하남성 송, 안휘성 박, 산둥성 민에서 도적떼가 일어나 정벌하느라 애를 먹었다. 태종은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중국의 사람들이 이같이 통제하기 어려울 줄을 알지 못 하였다.” 결국 고국으로 회군기로 결정하고 후진의 백관을 불러 말하였다. “기후가 더워져 가니 나는 오래 머무를 수 없고 상경으로 가서 태후를 돌보려고 한다.” 태후의 오빠의 아들인 소환을 개봉절도사로 삼아 방비토록 하고 고향으로 회군하였는데 도중에 하북 난현에서 46세로 병사하였다. 일찍이 태후는 “네가 한백의 땅을 얻어도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만약 뜻밖의 일이 생긴다면 크게 후회스러울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 있는데 그녀의 말대로 되었다.



4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오리건지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촛불을 켜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이날 사건으로 사살된 용의자 포함 10명이 숨지고 최소 20여명이 부상했다. 이에 앞서 텍사스 엘패소 지역에서도 총기사건이 발생, 20명이 숨지고 2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홍콩 송환법반대 총파업…지하철 끊기고 항공편 취소 ‘교통대란’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시위가 5일 벌어져 지하철 운행이 끊기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이날 금융인, 공무원, 교사, 버스 기사, 항공 승무원, 사회복지사, 언론인, 자영업자, 예술가 등 각계 중사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단행됐다. 홍콩 재야단체 등은 이날 총파업에 50만 명 이상 시민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한 송환법 반대 시위대는 총파업과 더불어 ‘비협조 운동’으로 불리는 게릴라식 시위를 홍콩 곳곳에서 전개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센트럴, 첼사추이, 몽콕 등 도심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이아몬드힐, 라이킹, 포트리스힐, 위안랑 역 등 4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운행 방해에 나섰다. 이들이 지하철 승차장과 차량 사이에 다리를 걸치고 서는 바람에 차량의 문이 닫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하철 운

행이 불가능해졌다.

시위대는 지하철 운행 방해는 물론 일부도로 점거에 나서고 한때 홍콩섬과 카오롱 반도를 잇는 터널 입구를 막아 버스 운행도 크게 지연됐다. 홍콩 버스노조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 상당수도 이날 병가를 냈다.

홍콩 시내 교통은 물론 아시아의 항공교통 허브 중 하나인 홍콩국제공항도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 홍콩 공항당국은 이날 총파업으로 인해 홍콩 국제공항 활주로 2곳 중 한 곳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신창동 가도빌딩, 근린상가 2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대출-3억5000만원있음 즉시입주가능
- 임대 - 보증금1억에 월400만 가능
- 매매 - 매수자 제시 요망(8월14일까지)

문의. 010-6834-7400